

## 단체수의계약제도 2006년까지 존속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2006년까지 유지된다. 열린우리당과 산업자원부는 9월 3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되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6년까지 연장되며, 2007년부터 폐지된다.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들에게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지만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일시적인 판로축소와 경영애로를 감안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대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45~50% 이상으로 고시하고,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범위를 용역과 건설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형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분리구매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을 규모별(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로 나누어 경쟁하는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2억원 이하의 소액구매계약은 중소기업간 경쟁으로 조달키로 했다. 또한 저가입찰격격심사제도를 도입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가격하락과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 품질저하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공공기관 성능인증 신제품 입찰 자격 부여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비율제도 20%로 확대 ▲공공기관 대상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조합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격조합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개별기업은 물론 조합을 만들어 경쟁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유사 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 ‘파견 근로’ 3년 땀 고용의무화

2006년부터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 넘게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해고가 제한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

부의 입법안이 파견근로를 크게 늘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 중소 ‘기술 담보 보증보험’ 도입

향후 5년간 5천억원을 목표로 ‘기술사업화전문투자펀드’가 조성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통망 공유를 통한 공동 마케팅이 확대 추진되고 이익공유제도가 전 업종에 도입되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확대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대·중소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경쟁력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은 기업과 기술평가기관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은 보험증서를 발부받아 대출에 활용하는 제도로 기술평가와 민간보험을 결합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취약한 유통망을 보강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 수만개에 달하는 대기업 전자대리점과 주유소를 중소기업제품의 유통채널로 활용,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성공하는 中企CEO 양성 연수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은 10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10일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성공하는 중소기업 CEO 양성과정 특별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국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최고경영자 비전과 경영 전략 △경영혁신과 리더십 △중소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 △해외사업 성공 전략 △생산·마케팅·원가·관리회계·세무관리 등 현장관리기법 △경영 분석 및 자가진단 경영 전략 등 경영 실재를 다룬다. 신청은 10월1일까지이며, 30명 선착순 마감한다. (031)490-1472

## 정보화 성과로 업무효율 높아져

정보화혁신 전문기업(TIMPS)을 통해 정보화 시스템

을 구축한 40개 중소기업의 원가가 구축 전에 비해 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제품 납기는 평균 20.8%나 단축됐고, 의사결정기간도 38% 단축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 구축 투자비용은 업체당 평균 2억원이었고, 이 중 정부지원금은 평균 4825만원이었다.

TIMPs는 중소기업을 대신해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정보화 계획에서 시스템구축 및 사후관리까지 일괄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정보화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전문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2002년에 4개 업종 6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했으며, 지난해 7개 업종으로 확대해 8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 중소 100만곳 신용정보 통합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100만여개의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정보를 총괄하는 중소기업 전문 신용정보사(CB·크레디트뷰로)가 설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CB 설립 추진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정보업계에서도 지난 8월 박상태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장이 개인 전문 CB 사업과 관련, 중소형 신용카드사들과 계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국내 CB 시장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CB 설립추진단장으로 짜여진 중소기업 CB 운영위원단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 금감위장 “중소대출 시장래성도 감안”

윤중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중소기업 대출 시 은행들이 재무제표 뿐 아니라 미래가치나 잠재성도 감안하는 한편 순수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대적 M&A 가능성과 관련,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만 일방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정책수단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도 확충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플라

자호텔에서 열린 기업금융의 여건변화와 금융감독 조찬강연에서 중소기업 경영진들로부터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금융감독국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중국진출 비용절감 때문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주요 투자동기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 요인과 중국 내수시장 개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국진출 중소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국진출 중소기업 경영환경 애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진출 주요동기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51.9%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시장 개척(27.5%), 노동력 확보용이(15.7%) 등 순이었다.

아울러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은 과반수 이상(57.4%)의 기업이 중국진출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손익분기점 소요기간은 평균 3.1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은 언어·문화장벽, 통관절차 복잡, 우수인력 확보난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진출기업의 일반적인 형태는 단독투자 형태로 생산시설을 일부 이전해 평균 219만6천달러를 투자, 현지인 242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능요원 2012년까지 유지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이 오는 2012년까지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고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산업자원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당정은 그 동안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중기청 등 7개 부처·청이 공동용역으로 검토해 온 ‘산업기능요원제도 및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당초 내년부터 폐지기로 했던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2012년까지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그 동안 기술자격증만 보유하면 편입될 수 있었던 자격요건을 강화해 관련분야 전공도 함께 요구해 양질의 인력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 분야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 중기청 부실자산인수 펀드 조성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가 하반기 중 조성된다. 또 현재의 주식회사 형태가 아닌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탈도 시범 설립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창업투자조합 출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최대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는 창투사가 보유한 미회수 자산을 인수,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에 재투자해 창투사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의 배드뱅크 성격이다. 중기청은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가 설립되면 자산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이뤄져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퇴출되고 회생가능 기업은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은 또 벤처 투자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탈 설립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식회사 형태와는 달리 유한회사 형태의 캐피탈은 회사의 주주와 투자 담당자가 일치해 외부의 간섭없이 투자 활동이 가능하다.

## 대상정보기술 중기용 솔루션출시

시스템통합(SI)업체인 대상정보기술은 최근 중소기업 시장을 겨냥한 솔루션 '유비콘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대상정보기술의 소비재 산업분야의 구축 경험이 반영된 ERP 솔루션으로서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상정보기술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 ERP솔루션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조달청 中企用 비촉원자재 인터넷 서비스

조달청은 중소기업들이 비촉원자재를 보다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원클릭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원클릭 서비스는 구입신청·고지서 발부·대금 납부·대금납부 확인·출고통지 및 원자재 인수 등 비촉원자재 구매 전 과정을 인터넷 나라장터(G2B)에서 원클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비촉원자재 구매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원자재 구입은 팩스를 통하거나 업체에서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었다.

업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창고까지 직접 배달해주는 '도어 투 도어' 서비스도 제공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서비스 개시와 함께 '한도지급보증제'를 도입, 중소기업들이 외상 구매 때 겪는 어려움을 덜기로 했다.

## 개성공단 공사비용 문제로 다시 진통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들이 물자반출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업체들은 비싼 건축비와 초기부담비용을 이유로 입주를 망설이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입주 예정업체들은 평당 150~200만원으로 예측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공사비가 국내와 거의 차이가 없고 심지어 중국, 인도네시아의 평당 공사비인 40~60만원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입주 예정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분명 인건비가 싸고 거리가 가깝다는 점에서 매력이 있긴 하지만 용수, 전력 등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인력과 물자의 입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 꺼려지는데 공사비까지 너무 비싸 입주가 사실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인 한 봉제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아 개성공단행을 결정했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비싸다면 중국보다 나은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원산지표기상 생산지가 '북한'으로 명기돼 미국,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사실상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인건비나 지리적 인접성만 갖고 개성공단의 매력도를 높일 수 없다는 얘기다.

입주 예정 업체들은 이에 정부가 표준공장 건축방식을 도입해 주거나, 협동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공사비를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도 256개 유망중소기업 선정

경기도는 금융, 기술, 정보, 수출 등의 분야에서 유망한 도내 256개 업체를 2004년도 경기도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최근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7일부터 5월1일까지 시·군 및 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유관기관으로부터 714개 업체를 추천받아 서류 및 현지실사와 민간 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한 유망중소기업선정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04년도 경기도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 輸銀 中企지원 대폭강화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은 연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25%로 높이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개성공단과 청주 등 5개 도시에 점포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 행장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전체 지원자금 12조 원 가운데 3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전체 자금 중 중소기업의 비중을 지난해의 21~22%에서 24~25%까지 높이고 거래기업 수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70%에서 74~75%로, 신용대출 비중도 80%에서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은 내년에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소 개설에 나설 예정이며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영업망 구축을 위해 청주·춘천·전주·울산 등에 소규모 점포를 열기로 했다.

## 中企 상담회사 35곳 이달중 퇴출

중소기업청은 지난 6~8월 전국 158개 중소기업 상담회사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업하거나 등록을 자진 반납한 35개사에 대해 이달 중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158개 상담회사 중 77.8%인 123개사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18개사는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로 등록을 자진 반납했고 17개사는 폐업·이전 등으로 연락이 두절돼 이달 중 청문절차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상담회사의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02년 1억2500만원에서 지난해 1억5900만원으로 21.4% 증가했지만 창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절차대행 용역은 2002년 40건에서 2003년 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담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2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상담회사를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담회사 용역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 中企 공장기계도 팔아준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

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물론 공장·기계 매매를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공장과 중고기계의 매매 관련 정보를 수집, 기업은행 홈페이지(www.kiupbank.co.kr)의 ‘공장매매 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장매매 정보센터는 공장이나 중고기계의 매매정보, 경매물건, 인수합병(M&A) 대상 물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보센터를 이용하면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매매 희망가격별 최적물건 검색기능과 공장구입과 관련한 시설자금·정책자금·경락자금 등의 금융지원 정보도 함께 제공해 금융자금지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공장매매나 M&A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근 기업은행 영업점 방문해 매매 희망물건에 대한 정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中企 체감경기 환란이후 최저

내수부진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대기업을 할 것 없이 체감경기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신용보증 이용업체 17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기실사조사(BSI) 결과에 따르면 3·4분기 실적 BSI는 81로 나타났다. 2·4분기(93)보다 12포인트 급락, 외환위기였던 1998년 3·4분기(56) 이후 최저 수치이다. 특히 올 4·4분기의 전망 BSI도 3·4분기와 같은 수준인 90을 기록,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견해가 기업들 사이에 지배적이다.

대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도 마찬가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출 600대기업을 대상으로 ‘9월 BSI’를 조사한 결과, 95.5로 6월부터 4개월 연속기준치 100을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체감경기 항목 중에서 내수는 추석특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5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며 112.2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소비심리 위축으로 예년 수준의 내수 증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설업 체감경기지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건설기업 BSI는 36.5로 전월에 비해 7.1포인트 하락하면서 1998년 9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